

〈채생기우(蔡生奇遇)〉 풍자성 고찰*

- 인물 형상화와 욕망을 중심으로 -

안지민**

- I. 머리말
- II. 채노인의 풍자적 성격: 不記와 二三其心
- III. 채생의 심리적 국면: 황홀함과 망설임, 赧
- IV. 여인들의 욕망의 흔적 : 인정투쟁과 怒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야담계 단편 소설 <채생기우(蔡生奇遇)>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채노인의 풍자적 성격, 채생의 심리적 국면, 여인들의 욕망의 흔적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인물 형상화와 욕망을 그려내는 방식이 풍자성을 효과적으로 선취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간 선행 연구는 주로 채노인과 역관 김령의 대결 구도를 주축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것은 근대 이행기에 신분 동향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근대적 사실주의(현실주의) 소설로 나아가는 좌표 속에 해당 작품을 놓고자 하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이 현재까지 굳어짐으로써 연구에서 배제된 영역들 또한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그 배제된 영역 중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먼저 채노인의 성격을 ‘진지함’, ‘근엄함’으로 규정해온 기존 견해와 달리

* 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교정을 봐준 조한서 동학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변덕’과 ‘기억상실’을 축으로 욕망과 체면(이념)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희극적 전형성을 획득함으로써 몰락 양반 계층이 효과적으로 풍자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다음으로 아들 채생의 시선, 태도, 감정에서 감지되는 환상적 욕망이 아버지의 가르침(이념)과 욕망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고찰한다. 또한 그 욕망의 기적적 성취가 오롯이 중인 역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아들의 서사는 어리석은 자의 과대망상적 욕망과 황재의 서사를 그리며 풍자되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채노인 처, 채생 처, 김령 딸의 욕망의 흔적을 찾아내어 다양한 위치의 여성들이 전통적인 위계 관계나 사회가 기대하는 시선에서 탈출하는 면모를 살핀다.

이로써 본고는 해당 텍스트가 한 집안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망들을 분출시키는 가운데 조선 후기의 몰락 양반 계층을 풍자하여 문학적 성취를 이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핵심어: <채생기우>, 풍자, 환상, 욕망, 흔적

1. 머리말

본고는 『기리총화(綺里叢話)』 소재 야담계 한문 단편 소설 <채생기우(蔡生奇遇)>¹⁾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채노인의 풍자적 성격, 아들 채생의 심리적 국면, 여인들의 욕망의 흔적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인물 형상화와 욕망을 그려내는 방식이 풍자성²⁾을 효과적으로 선취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1) 『이조한문단편집』의 작품 해설과 수록작품의 작가 일람을 보면 원출전은 『기리총화(綺里叢話)』 <채생기우(蔡生奇遇)>이며 작자는 이현기(李玄綺)로 특정해놓았다. 『이조한문단편집』에는 제목이 <김령(金令)>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의 제목이 내용과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여 해당 제목으로 실었다.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2, 창비, 2018, 13~34면;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4, 창비, 2018, 191~197면)

2) 여기서 본고가 말하는 ‘풍자성’은 희극성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도연은 희극성의 개념을 “주체와 대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희극적인 속성과 자질들”로 규정하고, 그 하위 개념으로 풍자, 해학, 아이러니가 있으며 풍자는 주체(x)와 대상(y)의 관계는

을 드러내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이우성·임형택(1978)이 편역한 『이조한문단편집』에서 해당 작품에 <김령>이란 새 제목을 붙여 작중 인물인 김령의 역관이라는 직급과 신분을 부각시키고 채노인에 대한 김령의 승리는 사회의 신분 동향의 일면을 흥미롭게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³⁾ 몰락 양반 vs 중인의 대결 구도로 작품을 바라보는 이 같은 시각은 후속 연구에도 일관되게 반영되었다. 이신성(1978)은 해당 작품이 단일하고 치밀한 구성, 타당한 인물 설정으로 근대적 성격을 띤 소설⁴⁾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으며, 작품의 주제적 측면에서 인물의 ‘전형성’을 논하면서 채노인의 현실 타협은 ‘명분을 벗어나 현실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추세의 반영’이고 김령은 ‘새로운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수완 있고 활달한 새로운 인간상’으로 보았다.

권혁화(1993)⁵⁾는 혼인 문제가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주변 인물의 관계가 중심 문제로 부각되는 새로운 구도가 이루어졌고, 설화를 소재로 택하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관점⁶⁾을 보였다. 특히 두 전형적 인물인 채노인과 김령이 갈등하다가 중국에는 인간 본성 발견과 물질적 가치관을 긍정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물질적 욕망의 긍정이라는 주제와 연관시켰다.

최광석(1997)⁷⁾은 작품의 핵심갈등이 김령과 채노인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보아 ‘혼사 장애형 소설’로 규정하되, 혼사 획득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x가 y를 비판’하는 구조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이도연, 『국문학 연구에 있어 희극성의 “개념”과 “범주” 설정을 위한 예비적 시론』, 『인문논총』 6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467~468면) 이러한 개념 정의는 한국 현대소설사의 희극적 소설의 계보를 작성하려는 목표에서 시도된 것이기에 야담 연구에 쓰이는 용어로 적합하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고는 ‘풍자성’을 날카로운 풍자, 본격적인 풍자소설이라는 의미가 아닌, 조선 후기 문인 사대부들이 유희로 창작하고 향유했던 야담의 장르적 특징을 의식하여 상기 정의를 수용하였다.

- 3)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中, 일조각, 1978; 『이조한문단편집』 2, 창비, 2018, 34면.
- 4) 이신성, 『漢文短篇 <金令>의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3-4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78, 209면.
- 5) 권혁화, 『결망연이팔낭자』의 구조와 의미, 경북대 석사논문, 1993.
- 6) 이러한 견해에 대해 장영희(2008)는 설화의 소설화에 대해 재고하지 않은 것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 7) 崔光哲, 『<結秀緣二八娘子>의 구조와 시대적 의미』, 문학과 언어 제 18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7.

벌어지는 주변 문제(과부의 재가, 신분 갈등, 계층 빈부 갈등, 가치관의 갈등)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사건 전개는 발전적 반복의 단계를 거쳐 관념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 갈등에서 점차 관념이 패배하고 현실이 승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작자의 서술 전략에 따라 작중 인물 형상의 역전 현상(예: 채노인은 긍정 → 부정적 인물로 변화, 김령은 부정 → 긍정적 인물로 변화)이 벌어지면서 숨어 있는 진실을 독자에게 드러내 보이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의 시대적 의미는 신분적 우위가 무력화되고 계층적 우위가 실질적 힘을 발휘하는 사회, 경제사적 현실을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당대 사회 문제를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보적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비현실적 관념을 버리고 물질적 가치가 힘을 발휘하는 현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작자의 시대 인식을 형상화하고, 채생의 관료로의 재진출에서 볼 수 있듯 중세적 가치관을 일부 긍정하면서 중세적 관념주의에 대한 근대적 현실주의의 승리를 보여주어 이 작품이 현실주의 소설로 나아갔다는 좌표를 설정했다.

장영희(2008)⁸⁾는 해당 텍스트에 대해 몰락 양반과 부유한 역관에 의해 신분제가 붕괴되는 현실의 한 단면을 그린다고 평가하였고 남녀의 결연은 두 인물을 만나게 하는 ‘소재’이며 이 소재로써 신분제의 모순을 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리총화』 소재의 <채생기우>를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분석한 이승은(2017)과 강혜규(2022)의 논의도 있었다. 이승은은 등장 인물의 심리 묘사가 서사 진행의 동력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서술의 초점이 채노인에게 쏠려있으며 작가가 채노인을 통해 변화하는 현실 앞에 놓인 인간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강혜규는 몰락양반을 좌지우지하는 김령에게 특히 주목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작가의식이 욕망의 긍정과 이성적 사고를 강조하고 자유와 행복을 제약하는 규범을 비판하며 상호교환으로 변화된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9)

8) 장영희, 「결방언이팔낭자(結芳緣二八娘子)의 대립구도와 그 의미」,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9) 이승은, 「『기리총화』소재 각화의 서사기법 다변화 양상과 의미」, 『고전과 해석』 22, 고전문학한문학회, 2017; 강혜규, 「<채생기우(蔡生奇遇)>와 <장수과전(張守果傳)>의 비교-인물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5, 국문학회, 2022.

이상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해당 작품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주로 작중 인물의 성격 및 구조 분석을 통한 시대상의 반영으로써 문학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오다가 서사의 서술 방식이나 작가 의식에 관심을 두는 쪽으로 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작품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실상에서 조금 멀어진, 실학, 민중의 생기발랄한 정신¹⁰⁾, 작자 성향 추정¹¹⁾등의 언급과 작품을 해석하는 시각이 김령-채노인의 구도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서 이제까지의 분석의 성과들을 재검토하며 텍스트의 가치를 새롭게 되찾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가 특히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인물 형상화와 욕망에서 추출할 수 있는 텍스트의 ‘풍자성’이며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까지 논의들은 채노인을 전형적인 근엄한 이미지로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¹²⁾ 과연 채노인이 그러한가? 하는 문제이다. 본고는 채노인이 풍자적인 인물에 가깝다고 보며¹³⁾ 작자가 이러한 인물형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파악하려 한다.

둘째, 이제까지 논의들은 채노인과 김령의 대결상에 주안점을 두어 아들 채생에 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채생이 김령과 만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환상의 심리적 국면에 주목하여 채노인 뿐 아니라 채생 역시 작자의 풍자 대상으로 소환되고 있음을 규명한다.

셋째, 채생의 본부인, 김령의 딸, 채노인의 아내 또한 아울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욕망이 숨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러한 질문은 부자

10) 이 논의는 주로 이신성(1978)에 의해 언급되었는데, 실학의 풍조와 민중의 생기발랄한 정신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모호하다.

11) 장영희(2008)는 작품의 창작이 전통을 고수하나 물질적 욕망을 희구하는 몰락한 양반 작가 의식에 기인되었다고 보았다고 하였으며 양반 작가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밝히고자 했다. 그는 텍스트의 서술자와 작자에 집중하여 분석을 시도한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분석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논문에선 분명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서술자와 작자의 차이가 불분명하다. 아마도 연구자는 서술자와 작자가 일치한다고 보았던 것 같다. 작자와 서술자를 분리해서 보고 이현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보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2) 최광석(1997)의 경우 부분적으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7면) ‘골계적으로 형상화’(11면)고 언급했을 뿐 본격적으로 채노인의 풍자적 성격을 다루지는 않았다.

13) 장영희(2008)의 경우 가부장의 명령과 가난한 살림살이에 대해 작자의 반감이나 풍자적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975면)고 지적하였다.

(父子) 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존재들을 마주하게 하면서 해당 작품을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고는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쌓아올린 선행 연구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먼저 2장에서 채노인의 풍자적 성격의 핵심을 규명하고, 3장에서 아들 채생의 망설임의 태도와 황홀한 시선 등의 심리적 국면에서 발견되는 환상적 욕망을 논의하여, 채노인과 채생 모두 작자의 풍자 대상이 되고 있음을 논의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지배 이념에서 탈출하고 있는 여인들의 다양한 욕망의 흔적을 논의하면서 몰락 양반 계층의 풍자에 효과적으로 일조하고 있음을 살피려 한다.

II. 채노인의 풍자적 성격: 不記와 二三其心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채노인의 성격에 대해 이신성(1978)이 “지조를 지키려는 완고함, 아들에게 가통을 잇게 하려는 집념, 김소 절약, 예의 범절을 준수하는”, “이조 사회 유교적 윤리 도덕관으로 무장한, 확고한 생활 철학이 있는 전형적 인물”로 규정¹⁴⁾하면서 이후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¹⁵⁾ 본고 역시 채노인에게 이러한 면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채노인의 성격을 이해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 듯 하다. 그것은 완고하고 근엄한 이미지로만 이해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풍자적 성격의 일면이다. 채노인의 풍자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몰락 양반 계층 및 아들 채생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이루고 있기에 이 장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풍자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적 형식¹⁶⁾이며 사악(邪惡)

14) 한편, 이신성은 김령에 관해서는 채노인의 성품을 미리 간파하여 딸을 위해서 저자세를 보이면서, 합리적이면서 부드럽고 적극적으로,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접근하여 능란한 화술과 재력으로 채노인을 압도해버림으로 해서 그의 완고함을 풀어지게 했다고 설명하였다. 덧붙여 채생은 부모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만한 인물이 못되는 어리고 순진한 타입으로 설명했다. (이신성, 같은 글, 209~218면)

15) 이러한 견해는 조선 후기 중인 역관들이 축적한 부와 그들의 신분/계층적 상승이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던 『이조한문단편집』의 해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6) 풍자소설을 다룬 논문에서 한국문학사에서 풍자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930년대부터 풍자

과 우행(愚行)의 폭로 및 교정을 목적¹⁷⁾으로 한다. 풍자는 풍자의 대상을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며, 그 대상은 위선과 허위 및 모든 무가치한 인간의 모든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채노인의 어떠한 면이 풍자의 대상이고 이를 바라보는 주체, 즉 서술자의 시선은 어떠한가? 또 이러한 관점에서 몰락양반 계층의 성격의 핵심을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먼저 채노인의 유교적 이념으로 정당화되는 폭력적/가학적인 속성이 풍자 대상임을 지적할 수 있다.

1) 영조 말엽이다. 채생은 가세가 빈한했는데, 남대문 밖 만리현에 세들어 살고 있었다. 달팽이 같은 집은 퇴락했고 끼니를 자주 걸렸다. 그런데도 채생의 부친 채노인은 성격이 화평하고 소탈하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조용히 자기를 지키면서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엄하게 가르쳐서 가통을 이어가려고 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옳지 못한 점을 보이면 채노인은 자식 사랑에 빠져[溺愛] 포용하는 법이 없이, 반드시 발가벗겨 노망태 속에 잡아넣고 대들보에 높이 달아맨 뒤 몽둥이로 두들기며 훈계하는 것이었다. “우리 가문의 흥망은 오로지 네 한 몸에 달려 있다. 엄하게 책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허물이 고쳐지기를 기대하겠는가?”¹⁸⁾¹⁹⁾

관련 이론을 살펴보면 풍자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문학적 양식”임을 거듭 밝힌다. (이도연, 『현대 풍자소설의 계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7(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75면)

- 17) Arthur Pollard는 풍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 “Johnson박사는 Dictionary에서 풍자를 정의하기를 『邪惡이나 愚行이 問責당하는 詩』라고 했다. ...Dryden은 『諷刺의 진정한 목적은 惡의 교정』이라 했고, Defoe도 『풍자의 목적은 改心시킴에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풍자시에 국한해서 설명한 정의다. 뒤이어 풍자가 형식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하며 A. Melville Clark의 해설을 인용하였다. “諷刺는 愚行의 暴露와 邪惡의 懲罰이라는 두 점을 諷刺의 세계의 焦點으로 하여 橢圓形을 그리며 往復運動을 한다. 諷刺는 輕薄한 것과 眞摯한 것 사이를, 그리고 아주 些少한 것과 몹시 敎訓적인 것 사이를 왕복하며, 극히 유치하고 잔인한 것부터 고도로 세련되고 우아한 것에 이른다. 풍자는 독백, 대화, 書簡, 연설, 서술, 풍속묘사, 성격묘사, 우화, 환상, 만화, burlesque, parody 및 기타 어떠한 수단이라도 단독으로 또는 습합시켜 사용한다. 또한 풍자는 wit(機智), ridicule(嘲弄), irony, sarcasm(비꼬움), cynicism(嘲笑), sardonic(冷笑) 및 invective(욕설), 즉 풍자의 스펙트럼 내에 있는 모든 語調를 사용함으로써, 그 表面을 多樣한 色相으로 變化시킨다”(Arthur Pollard, 『Satire』, 宋洛憲 譯,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6면~10면)
- 18) 원문과 번역은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2, 창비, 2018, 34면; 『이조한문단편집』 3, 창비, 2018, 474면)를 참조하고 부분 수정하였다.

2) 이윽고 채노인의 꾸중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이 개돼지 같은 놈아, 아직도 잠을 껴 자다니! 어느 거를에 글 한자나 읽겠느냐?”

채노인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채생이 부리나케 일어나서 옷을 주워입는데 채노인의 두리번거리던 눈길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주머니에 우연히 꽂혔다. 채노인은 대단히 해괴한 일로 생각하고 즉각 채생을 발가벗겨 노망태 속에 잡아넣고 들보에 매달았다. 그리고 사정없이 매질을 하였다. 채생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낄날이 실토하고 말았다. 채노인은 한층 더 격노해서 길길이 뛰며 편지를 써서 이웃집에게 부탁해 김령을 오게 하였다.²⁰⁾ (*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

인용문 1)에서 채노인이 소망하는 것은 “오직 아들 채생을 엄하게 가르쳐서 가통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조선 후기 생계가 막막해진 몰락 양반에게 ‘독서’를 통한 벼슬길 진출은 생사를 결정하는 절박한 문제였다. 아들이란 존재는 토지도 벼슬도 없는,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채노인에게 마지막 보루였을 것이다. 그런데 채노인의 유별난 점은 아들 교육에 ‘과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아들의 옳지 못한 점을 보면 “반드시 발가벗겨 노망태 속에 잡아넣고 대들보에 달아맨 뒤 몽둥이로 두들기며 훈계” 한다. 인용문 2)에서도 확인되듯 채생이 비단 주머니 속의 존재를 들켰을 때에도 채노인은 아들을 발가벗겨 노망태 속에 잡아넣고 대들보에 매달아놓고 매질을 가한다. 양반 가문 집안에서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는 경우²¹⁾는 볼 수 있지만 상기 장면은 다소 지나치게 느껴진다. 또한 아침 대낮부터 다짜고짜 부부의 방에 들이닥쳐 다투거나 아들의 성생활에까지 관여하는 권위 행사²²⁾는 “우리 가문의 흥망이 오로지 네(아들) 한

19) 英廟末蔡生者，家勢貧寒，僦居于崇禮門外萬里峴。蝸舍頽圯，簞瓢虛空，而生之父愷悌謹拙，恬靜自守，不以飢寒而易其操。惟嚴訓其子，欲紹家緒，見一不是處，未嘗溺愛包容，必裸入繩網之中，高懸梁上，以亂椎椎之，曰：“吾家門戶剝復，實係汝一身。未有酷罰，何望後過？”

20) 居無何，父厲責而入曰：“豚犬，尚在睡裡？何暇讀了一字？”因開戶叱之。生驚起攝衣。父轉目之際，已撞見床上小囊，不勝駭痛，裸生而納諸繩罟之中，掛于樑上，用力打下。生不堪苦楚，一一吐實。父一層激怒，三百曲踊，折簡，隣家借了一力，使招金令。

21) 가령 『익부전』에서 이익부가 춘향이의 집에 들락거리는 것을 알자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려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의 매질만큼 과도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22) 과도한 성생활에 관여하는 점은 “혼례날에도 일과의 글을 읽게 하고 신부와 동침하는 일까지도 날짜를 정해서 시키는”(雖結褵之日，亦令課讀。親迎之後，衽席之事，皆有指日所許) 데에서 알 수 있다. 성생활을 제어하는 것은 아들의 성욕을 제어함과 더불어 생산력을 제어하는

몸'에게 달려있다는 현실 인식과 “자식 사랑에 빠지는 것[溺愛]”에 대한 경계²³⁾로 표방되는 유교적 가치관 아래 스스로 없이 정당화된다. 다시 말해, 채노인은 가문의 미래를 위해 아들을 바르게 훈육한다는 구실로 감시와 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두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화평하고 소탈하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조용히 자기를 지키는” 유자의 모습과 확인한 거리가 있다.²⁴⁾ 서술자는 초반의 성격 기술을 곧바로 뒤집어 채노인의 위선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적시하고 있다. ²⁵⁾

두 번째, 겉으로는 지조 있는 인간인 척 굴지만 속내는 육체적/물질적 욕구에 아등바등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풍자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채노인은 아들을 납치해 자기 딸과 인연을 맺게 한 김령에게 노발대발하며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군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어느 비오는 날, 불현듯 찾아온 김령이 대화를 나누던 끝에 술을 권하자 채노인은 “배에서 꼬르륵하고 입은 굳침이 돌아 술을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겉으로는 사양한다.”²⁶⁾ 김령이 “서로 모르는 사이에도 술을 나누는 법”²⁷⁾이라고 은근히 권유하자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술잔을 받아들게 된다. 채노인의 입장에서 김령은 아들을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중인 출신의 과부와 은밀한 관계를 맺게 해 신세를 망치려든 작자이다. 그런데 ‘술’에 기분 좋게 취해버린 채노인은 그런 사실을 모두 잊어버리고 김령에게 “종종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데다 가족들 앞에서 김령의 좋은 점을 늘어놓는 주책까지 띤다.²⁸⁾

것, 즉, 출산을 통해 입식구가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채노인의 집이 너무나도 궁핍하기 때문이다.

23) 『대학장구』 8장 2절에 해당하는 주희의 주에 ‘溺愛’와 ‘貪得’에 대한 경계의 언급이 나온다. 채노인은 이 두 가지에 있어 극도로 경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溺愛者不明, 貪得者無厭, 是則偏之爲害而家之所以不齊也.”

24) 이외에도, 아들을 ‘개돼지’라고 부른다거나,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자, 채노인이 ‘격노해서 길길이 뛰었다(三百曲踊)’는 기술을 보면, 서두의 인물 제시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거듭 확인된다.

25) 최광석(1997), 장영희(2008)는 채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변화되며 가치관이 역전되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 했다. 그러나 본고는 작자, 서술자의 채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고 있다. 텍스트는 채노인의 성격에 대해 기술한 첫 문장 (“화평하고 소탈하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조용히 자기를 지키면서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을 배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26) 蔡老胃開口涎, 正欲轟飲, 而陽斥之.

27) 金曰: “酒杯相屬, 素味猶然. 況吾曹托契已久, 顏面且厚, 豈忍並坐而獨酌?”

28) 蔡老語沮一飲, 飲輒盡卮. 青州從事, 滌盡胸膈之醜磊, 梗腸蔬神, 却被珍肉之蹴破, 醉眼如潮,

술만 취하면 그간 고수했던 이념이나 지조 따위는 깡그리 잊고 본심을 표출시키고야 마는 것은 채노인의 반복적 행위의 특징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허기진 육체의 욕구를 허겁지겁 채우고 나서야 체면을 차리고 싶어하는 채노인의 특정한 행동 패턴이다. 다음 인용문 3)~4)에서 그러한 행동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3) 밥상을 올리자 채노인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여 어디서 생긴 것인지 캐어물을 겨를도 없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기니 걱정이 없는 것을 보고 비로소 이상히 여겨 출처를 물었다. 채생이 그 연유를 아뢰자 채노인은 대로 하여 꾸짖었다.

“차라리 구렁에 쓰러져 굶어죽을지언정 어찌 앉아서 명분 없이 남의 물건을 받아먹는단 말이나? 이미 지나간 일이나 토해낼 수도 없는 일이고 갚을 길도 없으니,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채생은 “예.”하고 대답했다. 29)

4) 김령은 이러한 사정을 탐지하고 나서 다시 또 10섬의 쌀과 100냥의 돈을 채생 앞으로 보냈다. 채생이 어찌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을 차마 볼 수 있었겠는가? 마음이 타고 가슴이 쓰라릴 정도로 지독하게 궁핍했으니 비록 똥장군을 짊어지고 날품을 파는 일이라도 사양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친히 아는 사람이 호의로 보낸 것임에야. 채생은 흔쾌히 도움을 받아들여 부모의 봉양을 풍족하게 했다. 채노인은 주립으로 정신이 혼미한 참이어서 앞뒤 모르고 음식을 탐하였다. 채생이 부모를 연일 지성으로 공양하여 며칠 지나자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도 계속 좋은 음식이 나오니 채노인이 물었다.

“이것들을 어디서 마련한 것이냐?”

채생은 또 사실대로 고하였다. 그러자 채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령은 어찌하여 이처럼 우리를 자주 도와준단 말이나? 앞으로는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받는다면 매를 면치 못할 것이다.”

襟期散朗。金盡歡而歸。蔡老曰：“君好是一介酒伴，必頻賜枉顧。”金曰：“今日天雨一借，幸得對觴，而余公務私故，盡日紛叢，安得抽身更到也？”蔡老送至門首，乘醉入室，團聚家小，盛言金令好處，旋又昏寢。平明乃覺，頗悔昨日爲其所賺，而不可及矣。

29) 進饋于翁，翁急於充飢，未暇窮詰。一日二日，再食無虞，蔡老始怪問之。生備悉其由。蔡老大怒曰：“寧願到溝壑，豈忍坐受無名之物也？事屬既往，實難吐囁，且無路可償，此後則慎勿破戒。”生唯唯。

채생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들였다.³⁰⁾

김령은 채씨 집안이 흑독하게 굶주리는 사정을 파악하고 나서 음식이나 돈을 몰래 지원해준다. 이에 채노인은 매번 “급급하고”, “정신이 혼미해” 음식이 어디서 난 것인지 “캐어물을 겨를”도 없이 “앞 뒤 모르고” 음식을 탐한다. 그러다 배가 부르고 정신이 돌아오면 그제서야 음식의 출처를 묻는다. 후에 김령을 통해서 건넰 사실을 알고 나면, “차후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거나 “앞으로 받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뒤늦게 체면을 차린다.

다른 사람의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꺼리는 것은 ‘탐득(貪得)’의 경계이다. 그런데 채노인의 탐득의 경계는 매번 육체적 욕구 앞에서 단숨에 허물어지다가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유령처럼 되살아난다.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은 채노인이라는 캐릭터를 매우 우스꽝스럽게 만든다.³¹⁾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김령의 지원을 받는 일에 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며 웃음을 유발한다.

5) 채노인은 5, 6개월동안 양식 걱정이 없이 편안히 먹고 지냈다. 하지만 저축해 놓은 것이 또다시 떨어지자 근심은 전보다 열배나 더하였다. 하염없이 고생하며 허다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채노인은 기계를 앞두고 제사를 마련할 방도가 없어 마음이 옥죄는 것 같았다. 집 안에서 서로 얼굴만 마주 보고 앉아서 궁리 저 궁리로 애를 태웠다. 그러다 문득 한 하인이 껌미돈 2백냥을 지고 와서 채생에게 바쳤는데 바로 김령의 집에서 보낸 것이었다. 채생은 부친의 훈계를 생각하고 거절하려 했다.

채노인이 말했다.“저쪽이 남의 위급함을 도와주는 의리로써 우리의 계수를 부조하는데, 인정으로 보나 사리로 보나 전부 물리칠 수야 있겠느냐! 반은 돌려보내고 받을 받는 것이 적당한 처사이니라.”

30) 金又探得這箇樣子，復以十斛長腰，百金鵝眼，爲生壽之。生豈忍見父母垂死？心灼肺燃，解罄囊恥，雖擔糞賃傭，何事可辭？而況人以好意送助乎？乃欣然迎受，以修親廚。父方病昏涖涖，惟貪食飲。生連供髓膩，數日乃痊，繼以甘旨調養之。蔡老曰：“此物從誰辦乎？”生又告其狀。父微笑曰：“金令安得時時周急也？此後則決勿有受。受當笞之。”生又領命。

31) 물론 행동패턴이 늘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채노인의 심경은 점차 물질 욕구로 가까이 다가서는 변화를 보인다. 처음에는 김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대노(大怒)” 하였다가 두 번째는 “웃음을 지으며” 한층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채생은 그대로 따랐다.³²⁾

6) 이튿날 김령이 상을 성대하게 차려가지고 찾아와 채생에게 주었다.

채생이 역시 거절하려고 하자 채노인이 하는 말이었다.

“이왕 차려온 음식인데 그냥 돌려보내선 낭패가 아니냐. 이번에는 받아들이기
로 하고 차후론 일절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³³⁾

인용문 5)에서 아들은 김령의 도움을 거절하려 하는데 채노인 쪽에서 “의리”, “인정”, “사리”를 들먹이며 “반은 돌려보내고 반은 받는 것”이 적당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6)에서도 김령이 가져온 음식상을 채생이 거절하려 하는데 채노인은 냉큼 “이왕 차려온 음식인데 그냥 돌려보내선 낭패가 아니냐”고 말한다. 이번엔 “예의”를 구실로 삼아 성큼 받아들이고 있다. 겉으로는 ‘예의’와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물질적 도움이 사라질까 초조해하는 심리가 가미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중요한 것은 봉제사와 접빈객이었다. 특히 ‘봉제사’는 단순히 조상을 공경하여 모신다는 의미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현시하는 행위”³⁴⁾이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채노인의 “마음이 옥죄고”, “이 궁리 저 궁리로 애를 태우느” 심리의 기저에는 사회적 체면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는 몰락양반의 욕망이 일관되게 놓여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³⁵⁾ 이념의 고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념을 고수함으로써 지켜진다고 상상되는 사회적 체면이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면모는 자신의 신념이 담긴 말 -“차라리 구렁에 쓰러져 굶어

32) 父高臥飲食，不愁桂玉者且五六箇月。及夫所儲又罄，愁惱十倍於前，在苒苦楚者，又許多日月。蔡老當其喪餘，蕪蕪俱空，情事催抑。偶坐室隅，百計熏心。忽見一僕齎緡錢二百，來獻于生，乃金家所餉也。生準擬父教，欲辭之。父曰：“他以急人之風，助我祀需，於情於義，不可全却。半完半受，允合得中。”生如戒。

33) 翌日金盛備食卓來饋生。生又欲却之。蔡老曰：“既熟這物，不可狼狽回送。今可染指，自後則一切防塞。”

34) 미야지마 히로시,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 양반』, 노영구 옮김, 강, 2006, 22면.

35) 채노인은 ‘접빈객’에 대한 것도 중요시한 것 같다. 채노인이 김령과 2번째 만났을 때, 김령이 비를 핑계로 채노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요청하는데 채노인은 “기뻐하며怡然” 맞이하는 장면이 있다. 앞서 노발대발했던 모습을 봐서는 이 표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것은 양반으로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생활 신조 중 하나였다는 데서 납득할 수 있다.

죽을지언정 어찌 앉아서 명분 없이 남의 물건을 받아먹는단 말이나?”- 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나서 다시금 유교적 의리나 예의로 합리화, 정당화시키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

7) 김령이 은근히 채노인에게 술잔을 권하자 채노인은 사양하지 않고 받아 마셔서 어느덧 만취가 되었다. 채노인은 드디어 김령에게 문경지교를 허락하고 나서 아들을 불렀다. “너는 김씨맥 규수와 본래 초월처럼 무관한 사이였으나, 어느덧 진진의 인연을 맺게 되었구나. 천생연분이 아니었던들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내가 종내 소원하게 대하여 남의 일생을 망치는 것은 크게 불가하니라. 오늘 밤이 매우 길하니 하룻밤 가서 자고 오너라. 오래 머물지는 마라.”

채생은 더없이 기뻐다. 김령은 두 번 절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즉시 채생을 말에 태워 자기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채노인의 마음이 혹시 변할까 염려해서 짐짓 눌러앉아서 놀다가 날이 훨씬 저물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채노인은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어제 자기가 했던 말은 까맣게 잊어먹고 어리둥절해서 묻는 것이었다.

“네가 웬일로 아침부터 의관을 차리고 들어오느냐?”

채생이 사실대로 아뢰자 채노인은 후회하였으나 부끄러워 책망도 못하였다. 그로부터는 채생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여 하는 대로 따르고 조그만 트집도 잡아 내지 않았다. 자연히 의식과 봉제사 모두 김령에게 의뢰하게 되었다.³⁶⁾

인용문 7)은 채노인이 채생과 김령 딸의 관계를 인정하고 외유를 허락하는 대목인데 채노인의 성격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채노인의 발언은 김령의 시선에서 “변덕(二三其心)”적인 성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아나니 다를까 채노인은 다음날, 자신이 했던 말을 “까맣게 잊고(不記)” 채생에게 어디서 오느냐고 묻는다. 채노인의 독특한 기억 상실은 자신의 지조와 물적 욕구 사이의 변덕을 메꾸는 일종의 무의식적 자기 변명, 자신의 위선을 감추는 심리적 방어기제와 같다. 이후 채노인은

36) 金慤勸蔡老，蔡老一直不辭，直到泥醉，許結刎頸，且詔生曰：“汝與金家閨秀，本自楚越之遙，忽成秦晉之好。豈無天緣存耶？汝不可終爲疎棄，斷人平生，今宵甚吉，可一宿而還，毋至留連。”生大喜諾諾。金再拜鳴謝，亟以班驪，送生于家。自己則或慮蔡老之有二三其心，故爲遷延，日曛乃去。生翌朝返面，蔡老渾不記昨日話頭，乃怪問曰：“汝緣何早整冠帶？”生以實對，父悔懊愧赧，不能罪責。從此一任於生，聽其所爲，不露些圭稜，而衣食祭祀，皆賴于金。

자기가 아들에게 김령 딸에게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 책망하지도 못한다.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채노인은 가부장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기고, 모든 의식제사를 김령에게 맡기게 된다.³⁷⁾ 즉, 관직도, 경제력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지조”가 유명무실해지고 그 이중적 실체가 폭로되면서 몰락양반의 가부장 권위는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다.

여기서 김령은 채노인의 육체적/물적 욕구를 폭로시켜 몰락양반의 위신을 실추시키는데 ‘술’을 제대로 이용한다. ‘술’은 채노인이 김령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그의 변덕스런 위선의 매커니즘을 폭로하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것이다.

가부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난 뒤, 채노인은 김령과 매일같이 술자리를 가진다. 그는 생활이 한결 편안해지자 “지난날의 고생을 생각하면 몸에서 소름이 일어날 지경”이라고 생각한다.³⁸⁾ 그러나 이후에도 채노인은 “탐득”의 경계(이념적 지조를 빙자한 사회적 체면)와 물질적 안락함 사이에서 변덕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8) 어느날 김령이 조용히 입을 뗐다.

“아드님이 나의 집을 자주 내왕하는 것이 남의 이목에 매우 구애됩니다. 이제 그만 발을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노인이 놀라서 말했다.

“그러면 내 마땅히 며늘아기를 우리 집으로 맞아와서 종적이 드러나지 않게 하겠소.”

“아드님은 아직 나이 어린 선비로서 위로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 정실이 있는 터에, 집에 소실을 두다니 말이 됩니까?”

“아무튼 무슨 묘책을 생각해서 우매한 나를 깨우쳐주려.”

“귀택 가까이에 집 한 채를 지어서 아침저녁으로 내왕하기 편하도록 하고 싶은데 고견이 어떠신지요?”

“그렇다면 주택은 대단히 클 것이 없고 부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 없으며 곳간도 풍성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문의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태도를

37) 從此一任於生，聽其所爲，不露其圭稜，而衣食祭祀，皆賴于金。

38) 金又日日載酒來造，討論衷曲，蔡老早傷於貧，頭鬢爲白，及夫坐衣遊食，又日與暢飲，頗覺自適，追念前日苦海，體膚起粟。

지키도록 해주기 바라오.” 채노인이 덧붙이는 말에 김령도 그러기로 약속했다.³⁹⁾

김령은 집에 돌아가서 목재를 구해 공사를 시작했다. 문득 일등 저택이 들어 서는데, 채노인의 뜻과는 아주 판이하게 되고 있었다. 채노인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종종 혀를 차다가 김령을 책망하기도 했다.

“저택은 자손을 기르는 곳인데, 선생은 옥을 안고 구슬을 품고 계시면서도 지금 세상에 쓰이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자손들이 그 응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찌 문호를 높힐 필요가 없으리까?”

이처럼 김령이 추어올리는 말에 채노인은 아주 기뻐하며 불평하던 말이 속 들어갔다.⁴⁰⁾

인용문 8)에서 채노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왕래를 끊는게 좋겠다는 김령의 말을 듣자 화들짝 놀라며 안절부절 못한다. 채노인은 김령 말을 졸지에 “며늘아기(吾婦)로 인정하며 집 안에 들이겠다고 다급히 나서고 김령 측에서 묘책을 생각해 깨우쳐달라며 애걸까지 한다. 입장이 바뀐 듯한 상기 대화에서 그간 제공받아 왔던 물질적 도움이 사라질까 몹시도 두려워하는 채노인의 심리가 엿보인다. 김령은 이에 새 집을 지어 아침 저녁으로 내왕을 편하게 하는게 어떠냐는 본심을 드러낸다. 그러자 채노인이 이를 허락하면서도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태도”를 운운하며 으리으리한 집이나 많은 하인, 풍성한 공간은 안 된다며 체면을 차리고자 한다. “지난날의 고생을 생각하면 온 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인데 김령 앞에서는 굳이 자신의 지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채노인의 심중을 간과하기라도 한 듯이 김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준다. 속으로는 물질적 편안함을 지향하면서 겉으로는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몰락양반의 이중적 욕망을 동시에 (알아서) 만족시켜 준 것이다. 집이 지어지고 나자 또다시 채노인은

39) 一日金從容進言曰：“公子之往來余家，漸礙人眼，願從此告絕。”蔡老驚曰：“然則吾當密迎吾婦于家裡，藏跡滅踪。”金曰：“公子年少布衣，上有庭闈，下有正室，決不可畜媵于家。”蔡老曰：“第思妙策，以詔愚迷。”金曰：“我欲別築一室于貴第之傍，以便晨夕往來，未審高見如何？”蔡老曰：“然則室宇無用高，婢僕無用多，庾廩無用富，以守吾家寒素。”金曰：“諾。”

40) 乃歸家鳩財，創建瓦舍，便成一區甲第，甚非蔡老志也。蔡老無由奈何，時或咄舌，繼以讓金。金曰：“第宅所以長子孫也。竊觀足下抱玉懷珠，而未需於世。令子賢婦當食其報，豈非高大門閭耶？”蔡老大喜而止。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태도를 지키는 가문”에 누를 끼쳤다는 식으로 김령을 책망한다. 이에 김령은 “옥을 안고 구슬을 품고 계시면서도 지금 세상에 쓰이지 못했다”며 마땅히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어찌 문호(門戶)를 높이지 않을 수 있겠냐고 추켜세워준다. 그러자 채노인의 불평이 어느새 쪽 들어가버린다. 물질 지원을 갈망하면서도 사회적 체면에 연연해하는 몰락양반의 허영심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런 몰락양반의 성향을 한 눈에 파악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중인의 영리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양쪽 세계를 왔다갔다하는 ‘변덕’은 채노인의 성격적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채노인은 이 ‘변덕’ 부리는 성향을 마지막까지 바꾸지 않는다. 채생의 모친이 아들의 권유에 따라 새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하자 채노인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의 태도로 옛집을 지키겠다고 또 고집을 부린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 혼자서 퇴락한 빈집을 지키던 채노인은 새 집에 찾아갈 때마다 모든 것이 갖춰진 풍족한 상황을 보며 “갈적마다 그곳에 더 머물러 떠나고 싶지 않은” 심정이 된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의 여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으랴! 불과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이지. 하필 사서 고생할 거야 무어있겠느냐”며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 하지만 채노인은 아들 앞에서 또다시 자기 체면을 차리고자 한다. 채노인은 “나 혼자 빈집을 지키고 너에게서 식사를 날라다 먹으니 도리어 폐단이구나. 가족이 나뉘어 사는 것이 늘그막에 더욱 어려운 일이다. 나도 새집으로 가서 단란히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⁴¹⁾고 운을 뗀다. 채노인은 가족이 헤어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 식사 준비로 아들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폐단이라고 말하면서 거주의 불편함과 궁색함, 노년에 좀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솔직한 심정을 절대 내비치지 않는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화목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가족 앞에서조차 체면 없이는 살 수 없는 매우 변덕스럽고 우스꽝스런 인물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풍자 대상이 된 채노인을 향한 서술자의 시선은 시종 어떠한가?

41) 亟招生曰：“吾獨寓空舍，傳食於汝，還成一弊。且室家分張，晚景尤難。欲同處新舍，以便團樂，於意云何？”生大喜贊成。其父乃即日移占，庭無間言。

9) “한식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구나. 묘제는 의당 내가 몸소 가야할 일이나, 네가 관례를 치른 이후로 아직 성묘를 못 갔으니 인정에나 도리에나 다 옳지 못하다. 내일 새벽에 떠나 사흘 동안 바삐 걸어 백여 리를 가면 기일에 대어 선산에 당도할 것이다. 묘제를 드릴 때는 모름지기 정상^正상^誠한 글자를 명심해서 절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고 물러서는 데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가고 오는 길에 혹시 아녀자들이나 상여를 만나면 반드시 피하여 보지 말며 마음을 가지런히 하도록 힘써야 하느니라.”

채생은 거듭해서 부친의 명을 받았다.

이튿날 새벽바람에 길을 나서는데 채노인은 또 문밖까지 나와서 당부했다.

“긴 여로를 절대 허송하지 말고 경서 한질을 암송하여라. 여관에선 반드시 음식을 절제하여 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무쪼록 힘쓰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⁴²⁾

인용문 9)는 채노인이 채생을 성묘 보낼 때 당부하는 대목이다. 묘제에 사용될 제사 음식이나 여비에 대한 그 어떤 말도 없으며, 오직 행동과 마음을 다스리고 경서 암송에 신경쓰라는 식의 말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채노인의 훈계는 공허하고 우습다. 너무도 가난하여 끼니를 자주 거른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성묘를 떠나러 가는 아들에게 “음식을 절제해서 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 상황과 매우 어긋나는 발언이다. 이러한 채노인을 바라보는 서술자 시선은 어떠한가? “채생은 거듭해서 부친의 명을 받았다”의 원문은 “生僕僕領命”이다. “僕僕”에는 ‘거듭, 반복’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귀찮을 정도로 번거롭고 번쇄하다는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다. 이튿날에도 채노인은 “또(又)”문 밖까지 나와서 당부한다. “또(又)”라는 부사의 사용에서 “僕僕”의 뉘앙스가 중첩되고 있다. 채노인의 강박적인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⁴³⁾

42) “冷節只餘四箇日。墓祭固宜躬行，而但汝成冠之後，猶曠省墓，於情於理，俱是未安。可於明曉，趨程三日，而走百有幾里，則當赴期到塋下。將事之際，須用一箇誠字，拜跪出入，無或少忽。行路如見女伴及輿輻，必避回不見，以務心齋。”生僕僕領命。翌日，拂曙而行。父又出門，囑之曰：“長程決勿浪度，默誦一經。逆旅必須節食，用免二豎。勉哉！勗哉！”

43) 최광석(1997), 장영희(2008)는 채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변화되며 가치관이 역전되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 했다. 그러나 본고는 작자, 서술자의 채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고 있다. 텍스트는 채노인의

채노인을 향한 서술자의 부정적 시선은 아래 인용문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10) 김령은 원래 부귀하여 아무리 재상 반열의 대신이나 학사라고 해도 앉아서 불러볼 수 없는 위인이었다. 하물며 일개 훈장이 편지 한 개 보냈다고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겠는가? 다만 과부가 된 딸을 맡기고 싶어 치욕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즉시 달려와 만났다. 44)

11) 채노인은 평생의 사귀이 궁한 훈장과 시골 선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좃일 오고 가는 말들이란 기껏 서로 근천을 떨어 판에 박은 듯한 가난 타령 뿐이었다. 그러다가 김령의 박식하고 훌륭한데다가 아침하는 웃음과 환심을 사려는 언변을 대하니 크게 기뻐 심취하고 말았다. 45)

12) 어느덧 돈이 떨어지고 굶는 일이 여전하였다. 채노인은 본래 성격이 허술해서 생계를 차릴 주변이 없었다. 채생 모자가 삼작 뜯어다 불 때고, 아랫돌 빼다가 윗돌 끼는 식으로 간신히 한 해를 넘겼다. 가세는 막다른 데 다다라 빛은 산처럼 불어나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46)

인용문 10)은 채생과 김령 딸의 결연 사실을 뒤늦게 안 채노인이 격노해서 김령을 오게 한 다음 서술된 문장이다. 서술자는 채노인을 “일개 훈장”이라고 폄하하는 반면 김령에 대해서는 “원래 부귀하여 아무리 재상 반열의 대신이나 학사라고 해도 앉아서 불러볼 수 없고”,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없는” 대단한 위인이라는 점을 특기한다. 서술자는 중인층 역관이 몰락양반보다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역전된 현실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령이 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문할 수 밖에 없는 심적 상

성격에 대해 기술한 첫 문장 (“화평하고 소탈하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조용히 자기를 지키면서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 을 배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44) 令自是豪華，雖宰執學士，不能坐而輒邀，況一學究遣一星而任自招來耶！徒以婦女歸屬，甘受凌逼，刻下馳諷。

45) 蔡父生平追遊，不越乎村學秀才，終日接語，惟相較貧窘，如印一板。及見金婦博軒偉，重以諂笑獻媚，乃大悅心醉。

46) 於焉之頃，青蚨已乏，飢餒依舊，而蔡老性本疎拙，不謀產業。生與母，撐東補西，掇下充上，拖至周歲，而勢同弩末，債如山積，死亡迫在呼吸。

황까지 기술함으로써, 앞뒤 분간 못하고 날뛰는 채노인(몰락양반)의 융통성 없는 모습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김령 편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인용문 11)은 김령과 채노인이 두 번째 만났을 때의 서술이다. 여기서 서술자는 유연하게 상대를 대하는 박식한 김령에 대비해서 비좁은 사교영역과 가난 타령만을 화제거리로 삼는 채노인의 궁색하고 폐쇄적인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술한다. ‘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뎌 입으로 說貧을 하지 않는’⁴⁷⁾ 류의 양반 체모도 상실했으면서 아첨하는 김령의 태도에 “기뻐서 심취해” 훌쩍 넘어가는 채노인의 허영심을 서술자는 부각시키고 있다.

마지막 인용문 12)에서 서술자는 채노인을 “본래 성격이 허술해서 생계를 차릴 주변이 전혀 없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장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여기서 ‘본래(本)’이하에 나오는 성격의 명시, 즉 ‘허술함’이 채노인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임을 알 수 있다. 온 가족의 죽음을 앞전에 두고 있는데도 생계 유지를 위한 그 어떤 대책도 없는 몰락양반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채노인에 대한 서두의 긍정적 인물 평가는 채노인이 세상에 자신을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을 직서한 것으로, 내포작가의 계획된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노인은 ‘익애’와 ‘탐닉’을 경계하며 추위와 굶주림에도 굴하지 않는 지조 있는 사람인 척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하지만 서술자는 그를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융통성 없으며 비사교적이며 폐쇄적이고 허술한 몰락 양반으로 중인 역관과 대비해서 기술한다. 서술자의 부정적 시선 속에서 채노인은 가문의 영속을 위해 아들 교육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시시때때로 폭력을 가하며, 물질/육체적 욕구와 사회적 체면 사이에서 변덕 부리다 급기야 기억상실로 간극을 때우는 우스꽝스런 이중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희극적 전형성을 획득한다. 여기서 ‘변덕’과 ‘기억상실’은 바로 채노인 성격의 핵심적 결함으로, 김령이 제공하는 ‘술’에 의해 그 위선의 심리적 매커니즘이 폭로되며 풍자되고 있는 것

47) 해당 문구는 박지원의 『양반전』에 군수가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을 부자에게 써 주는 증서 내용중에 있다. “忍飢耐寒, 口不說貧”(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4, 창비, 2018, 514면 참조)

이다. 이처럼 ‘변덕’과 ‘기억상실’을 골자로 한 우스꽝스런 인물 유형은 이념의 고수로 유지되는 체면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이중적인 몰락양반 계층을 풍자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III. 채생의 심리적 국면: 황홀함과 망설임, 赧

『기리총화』의 <채생기우>라는 제목은 『이조한문단편집』에 <김령>이란 제목으로 변경되어 실려 있다. 이러한 제목의 변경은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김령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선행 연구도 이들 갈등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채생에 대한 분석은 미미했다. 그러나 원래의 제목을 보면 채생이 서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야담에는 서사의 핵심과 어긋난 제목이 많긴 하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경우 채생을 그냥 지나칠 순 없다고 생각된다. 채생이 성묘를 하러 가는 길에 납치되어 역관 김령의 딸과 인연을 맺는 사건 및 이후 채노인과 김령의 대립 과정을 거쳐 채생이 집안의 주도권을 넘겨받게 되는 것, 처음과 끝부분의 서술이 채생으로 시작해서 채생으로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그러하다.

무엇보다 채생이 김령과 그의 집, 그녀의 딸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에 담긴 심리적 국면에는 ‘환상’⁴⁸⁾적인 것이 가미되어 있는 바 주목을 요한다. 다시 말해 채생의 황홀한 시선과 망설임⁴⁹⁾의 태도에는 환상적 욕망이 도사

48)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12~18면.

‘환상’은 욕망에 관한 문학으로서 부재와 상실로 경험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문화의 말해지지않은 부분, 보이지 않은 것, 침묵당하고 가려져 온 것들을 추적한다. 환상이란 초월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계의 요소들, 규범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규칙이나 관습을 전도시키는 것이라 이해될 수 있기에 환상성, 그것이 갖는 전복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 내에 있는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고려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환상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다. 환상은 이 세계의 요소들을 전도시키는 것, 낯설고 친숙하지 않으며 그리고 명백하게 ‘새롭고’ 절대적으로 ‘다르’ 어떤 것을 산출하기 위해 그 구성 자질들을 새로운 관계로 재결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49) 토도로프, 『덧없는 행복 - 루소론 외』, 한국문화사, 1994, 124면.

토도로프는 『환상문학서설』에서 환상이 “초자연적 현상과 사건에 직면하여 체험하게 되는, ‘망설임’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해당 텍스트에는 ‘초자연’적이라

리고 있으며 그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욕망의 세계를 지시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채생의 시선과 태도를 개별 양상으로서 분석한 뒤, 이를 통괄해서 아들의 서사축이 환상적으로 직조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13) 채생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모두 받아들였다. 남대문을 통과하여 열십자 길을 돌아가는데 허름한 옷에 미투리를 신고 가는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이때 웬 건장하고 험악하게 생긴 노숙 5, 6명이 황금 재갈에 비단 언치를 놓은 준마를 이끌고 길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채생 앞으로 나와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채생은 얼굴을 붉히고 당황하여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려 했다. 노숙들이 채생을 빙 둘러싸고 이르는 말이었다.

“소인덱 영감께로서 서방님을 모셔오라합니다. 어서 말에 타십시오.”

채생은 영문을 몰라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신들 어느 댁 사람이오? 내 가까이에 이렇다 할 친척이 없거늘 누가 이런 일을 시킨단 말이오? 얼른 비켜주오.”

노숙들은 두말 않고 일제히 덤벼들어 채생을 끌어들여 말안장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고삐를 잡고 채찍을 휘두르니 말은 나는 용처럼 빨랐다. 채생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오직 애달프게 부르짖을 따름이었다.

“나는 부모님이 다 연로하시고 형제도 없는 사람이오. 당신들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가련한 이 목숨을 살려주오.”

노숙들은 들은 척도 않고 줄곧 말을 몰았다.⁵⁰⁾

인용문 13)에서 성묘길에 나선 채생은 거리에서 “웬(忽)” 건장한 노숙들을 만나 내내 당혹스런 감정을 감추지 못한다. “얼굴을 붉히고 당황하여(羞

할 만한 것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환상은 객관적인 경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하나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의 주관적인 심리이기도 하다. (김성룡,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15집, 2003, 5면)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하는 ‘망설임’은 환상 장르의 이론적 개념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중 인물의 심리적 특징 및 서사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므로 사용하는 것임을 밝힌다.

50) 生滿口應承，經于南門，轉過十字街，葛衣麻鞋，行色零星。忽有五六皂隸，豪悍胖健，携一駿駮骨，金勒繡薦鞵，拜于路傍。生羞赧不敢當，疾足便走。皂隸團團圍丸曰：“小的家令公，奉邀郎君，願速上馬。”生訝惑囁嚅曰：“君是誰家臧獲？我也四顧無顯親，誰有送馬？速去也。”皂隸更不對話，齊力推擁，勒使據鞍，施策打箠，迅如飛龍。生目瞪口呆，不能定情，哀呼悲呼，曰：“我庭關係老，兄弟終鮮。望君特垂慈悲，救活縲喘。”皂隸佯若不聽，惟事驅馳。

赧不敢當), “영문을 몰라서 더듬거리며(訝惑囁嚅),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目瞠口呿, 不能定情)”고 기술된 부분은 자신이 마주친 사건을 현실적,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의 집안은 “가까이에 이렇다 할 친척도 없기” 때문에 말을 끌고 자신을 마중나올 누군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황하고, 더듬거리며, 정신을 못 차리는 채생의 이런 망설임의 태도는 납치의 순간,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혹은 이상한 일이 도사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을 그 자신 및 독자에게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납치가 김령 딸의 배필을 구하는 일과 연관이 있으며 김령의 계획 하에 채생은 그 배필로 ‘우연히’ 선택되었다는 반전이 생기는데, 이러한 우연성은 그 자체로 환상적인 것에 부합된다.

김령의 집에 도착해서도 채생은 줄곧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시종일관 망설이고 주저하는 태도와 황홀한 시선을 내보인다.

14 채생은 황망하여 절하고 무릎을 꿇었다. (生忙拜膝席.)

15 채생은 시종 어리숙한 사람이라 내내 무슨 영문인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고, 묻고 싶어도 묻지 못하였다. 다만 얼굴이 온통 홍시처럼 붉어져서 공손이 앉았을 뿐이었다. (生終始愚騃, 究解他不得, 動問他不得, 惟滿面通紅, 拱手侍坐而已.)

16 채생은 더욱 눈을 둥그렇게 뜨고 감히 무엇이랴 응대하지 못하였다. (生益覺瞠然, 不敢有應)

17 채생이 우두커니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진기한 풀, 묘한 돌, 이름난 꽃, 아름다운 새 등등 바닷가에서 신기루를 바라보는 듯 황홀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生停立偷視, 則奇艸異石, 名花彩禽, 如入海觀市, 怳惚不可名狀)

인용문 14), 15), 16)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채생은 “황망”하여 “내내 무슨 영문인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묻고 싶어도 묻지 못하며”, “감히 무엇이랴 응대하지 못”하는 수동적이고 위축된 인물로 형상화된다. “길가에서 내

행이나 상행을 만나면 반드시 피하여 보지 말라”⁵¹⁾고 했던 아버지의 훈계에 복종해야 마땅할 생은 김령 앞에서 망설임의 태도만 보일 뿐이다. 한편, 17)은 부유한 김령 집의 공간을 바라보는 채생의 시선이다. 김령 집 공간은 “퇴락한 달팽이 같은” 채생의 집과 극단적으로 대비되어 기술되는데 여기에 대한 채생의 심리적 반응은 “황홀”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환상적인 대상으로 묘사된다. 김령의 세계는 채생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와 질적/양적으로 다른 그 무언가로서 ‘표현할 수 없고’, ‘재현할 수 없는’ 황홀경의 세계이다.

18) 잠시 후에 두 청의가 채생을 맞아서 인도하는 것이었다. 채생은 그를 따라서 한 홍원에 이르렀다. 푸른 사창 안으로 은촛대에 불빛이 휘황하고 향불의 연기가 가늘게 오르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한 방년의 아씨가 꽃 같은 자태 달 같은 얼굴로 곱게 치장하고 고고하게 창 안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림자가 살짝 내비쳐 옆모습이 보였다.

채생은 머뭇머뭇 앞으로 나아갔다. 아씨도 사뿐히 발을 옮겨 맞아들이고 다소 곳이 절을 하는 것이었다. 채생도 머리 숙여 답배를 했다. 그리고 전방석에 마주 앉았다. 시녀가 상을 내오는데 온갖 진미가 값진 그릇에 풍성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채생은 부끄럽고 어색하여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주인이 말했다.

“저 어린 여식의 부귀는 원래 타고난 것이요, 오직 자네에게 바라는 바는 은정이 끊이지 않고 질투가 행하지 않아서 백년토록 의가 좋았으면 하는 것이네. 이 점을 잘 생각하여주게.”

채생이 또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주인은 일어나서 문을 닫고 나갔다.

할멈이 칠보 침상에 비단 이부자리 두 채를 깔고 채생을 휘장 안으로 들어가 시자고 했다. 채생은 마지못해 들어갔다. 할멈은 아씨를 부축해서 채생과 나란히 앉히고 나서 휘장을 내리고 문서(文屜)로 고정시켰다.

채생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아 주저주저하고 있었다. 완랑(阮郎)의 천태고사(天台故事)를 들어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유의(柳毅)의 동정고사(洞庭故事)에 자신을 견주어보기도 했다. 이내 촛불을 끄고 베개를 나란히 하니 애뜻한 속삭임이 끝이 없었다.⁵²⁾

51) “行路如見女伴及喪輜，必避回不見，以務心齋。”

52) 居無何，二青衣邀生而導之。生踵至一座紅院，只見碧紗窓裡，銀燭耿煌，香煙裊裊。二八娘子，

인용문 18)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채생은 김령의 딸을 감각적으로 지각하지 못한다. 채생의 딸은 “꽃같고 달같다”는 반구상⁵³⁾적인 어휘 속에 잠겨 독자로 하여금 막연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유도할 뿐이다. 그것은 이후 채생이 자신의 본부인에 대해 “나무비녀, 몽당치마에 때긴 얼굴이 수척해서 전에 없이 초라”해 보인다고 한 구체적인 묘사와 현저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채생의 본부인이 머무는 내실은 “부러진 창살, 비 새는 천장, 바람이 들어와서 뺨끝이 시리고, 부들자리 삼베 이불에 벼룩과 빈대가 극성”으로 찢긴 하계 묘사되었는데 김령 딸의 공간은 “푸른 사창 안으로 은촛대에 불빛이 휘황하고 향불의 연기가 가늘게 오르는 것이 보일 뿐”이라고 서술되어 어렴풋한 심미적 환상만을 물씬 자아낸다.

여기서도 역시 채생은 그녀 앞에 “머뭇머뭇”대며 나아가고, 진수성찬 앞에서 부끄럽고 어색하여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하기도 하고, 딸과 백년해로하길 바란다는 김령의 말에 “또 대답을 못한다” 채생의 딸과 잠자리를 하게 된 채생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아 주저주저한다.” 이처럼 황홀한 세계를 향한 채생의 망설임의 태도는 시종일관 계속된다. 급기야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완랑(阮郎), 유의(柳毅)의 고사에 견주며 김령의 딸을 ‘선녀’와 ‘용왕의 딸’에 등치시킨다. 주지하다시피 두 고사 모두 주인공들이 신선 세계나 바다 용궁 세계에 갔다 오는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비록 채생이 비현실적 공간에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유를 선택한 덕분에 김령의 세계를 대하는 심리적 국면은 다분히 환상적인 것으로 독해된다.⁵⁴⁾

月態花容, 靚粧炫服, 翹立戶內. 隱映顯晦, 只窺一斑. 生趨趨而進, 娘子蓮步乍動, 宛轉出來, 蕭生而入. 拜了一拜, 生沒頭答拜, 偶坐毘毘. 侍婢進饌, 珍味方丈, 寶器綜錯. 生羞赧不敢下箸. 主人曰: “稚女富貴, 吾所固有也. 但仰恃於君者, 若恩情無間, 讒嫉不行, 則可得百年鳧藻, 惟君圖之.” 生亦不能答. 主人轉身而出. 一爐, 鋪列兩箇錦褥於七寶床上, 請生入帷, 生暈勉而入. 嫗又扶娘子, 與生并坐, 仍下流蘇, 鑲以文犀. 生掣肘矛盾, 猶未定情. 更以阮郎天台而自解之, 柳毅洞庭而自況之, 乃嚙燭交枕, 情思繚繞.

53) 김현주(2007, 61~62면)는 고소설의 담화방식에 몽환적인 경향, 즉,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그리지 않고 흐릿하게 하는 류의 담화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반구상(反具象) 담화’로 지칭하였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추상적’, ‘관념적’ 담화보다는 개념의 범주가 보다 명확하여 본고에서 사용한다.

54) 먼저 완랑의 고사는 『태평광기』에 『천태이녀(天台二女)』라는 제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완랑 즉, 완소(阮肇)와 유신(劉晨)은 천태산으로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10일을 굶던 중 냇물에 떠내려오는 술잔을 발견하곤 가까운 인가를 찾아 산을 넘는다. 마침내 들은 커다란 냇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름다운 두 여인을 만나 맛있는 음식도 대

왜 서사는 그렇게 서술되어야 했을까? 다시 말해, 채생의 서사에서 왜 일관된 망설임의 태도와 황홀한 시각을 보여야 했을까?

우선 그것은 작품 외적인 면에서, 전통적으로 환상적인 서사, 타력에 의해 낯선 곳에 도착한 자가 늘상 보이는 태도와 시각을 관습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 내적인 면에서, 그것은 폭력적이며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채생의 억눌리고 위축된 정신의 일면과 욕망을 보여준다. 마음에 걸려서(掣肘矛盾) 망설이고 주저하는 까닭은 채노인의 엄한 훈계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노망태에 간혀서 매질을 당하며 성장했던 채생은 훈계를 위배하는 것 앞에 서면 움찔하고야 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욕망한다면 그 양자 사이에서 망설(猶未定情)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억압적인 가부장의 그림자 밑에 숨겨진 욕망은 ‘赮’이라는 감정에 집약된

절반과, 잠자리도 함께 하는데 이렇게 10일을 지내고 돌아오니 고향 마을은 쇠락해 있고 10대가 지난 후였다. ((宋)李昉 외, 『태평광기』 3,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학고방, 2001, 266~268면) 이 이야기처럼 채생이 김령의 집에서 대접받은 온갖 진미의 음식들과 김령 딸과 잠자리를 하게 된 일은 신비롭고 환상적인 것이었다. 한편, 유비의 고사는 당나라 이조위(李朝威)의 전기 『유의전』에 나온다. 유의는 벼슬에 떨어지고 고향에 돌아가던 중, 동정호를 다스리는 용왕의 막내딸 공주로부터 경천(涇川)을 다스리는 임금의 둘째 아들에게 시집가서 학대받다가 소박맞은 이야기를 듣는다. 공주는 오나라에 가서 동정호를 지날 때 자신의 서찰을 용궁에 전해달라 부탁하고 유의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다. 이후 유의에 의해 서찰이 용궁에 전해지면서 공주는 무사히 구출된다. 용궁에서는 유의에게 잔치를 열어주고 용왕의 아우인 전당은 공주와 혼인할 것을 청하지만 유의는 고향에 정혼한 사람이 있어 거절한다. 이후 고향에 돌아온 유의는 용궁에서 얻은 보배를 팔아 부자가 된다. 그리고선 유의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내가 죽고나서야 과부인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용궁의 공주였다. 이는 사실이 밝혀진다.(장기근 편역, 『당대 전기소설의 여인상』, 명문당, 2004, 183~200면; (宋)李昉 외, 『태평광기』 17,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학고방, 2004, 565~593면; 楊家駱 編, 『唐人傳奇小說集』, 世界書局, 1988, 62~76면) 유의는 이야기에서 공주를 구출한 ‘구원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덕택에 인간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인간 세상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용궁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 유의의 고사와 채생의 이야기는 구조상 상당히 비슷하다. 그 구조를 도식화하면 ‘구원요청 → 구원 → 부와 아름다운 아내(과부)를 얻게 됨’이다. 채생 역시 김령의 요청으로 과부 신세인 김령 딸을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그 요청에 수락한 이후로 부유해지고 김령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유의는 의협심이 강했고 여성에 대한 탐욕이 없었기 때문에 부와 여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이유가 서사에 제시되었지만 채생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와 명예, 여성을 모두 가졌다는 점이다. 결말에서 이루어지는 김령이 제공하는 일천묘의 땅, 그러한 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과거 급제, 아름다운 첩을 소유하는 데에 상응하는 채생의 어떤 덕목도 없다. 이러한 차이와 공통점으로부터 물질과 여색, 명예에 대한 채생의 환상적인 욕망과 아무런 댓가 없는 욕망의 성취를 은밀히 승인하고 있는 서술자를 감지할 수 있다.

다. 채생은 길거리에서 노복들이 절할 때도 ‘羞赧’하며, 김령 앞에서도 ‘滿面通紅’하고, 채생 딸 앞에서 식사를 할 때도 ‘羞赧’한다. “황금 재갈에 비단 언치를 놓은 준마”를 이끌고서 마치 채생이 주인이라도 되듯 절을 하는 건장한 노복들, 으리으리한 집에서 온갖 호사스런 의관을 갖추고 있는 김령, 평소에는 꿈도 못 꿰볼 진수성찬과 아름다운 여인, 이 모든 것은 ‘검소함’, ‘절제’ 따위를 미덕으로 읊는 아버지의 기계적 훈계에 결코 마땅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고 있는 내면의 욕구를 느끼자마자 채생은 거듭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赧’이라는 감정, 망설이는 태도와 황홀한 시선은 채생의 숨겨진 욕망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사에서 채생이 줄곧 황홀경의 시선, 망설임의 태도, 부끄러운 감정을 보이는 것은 아버지의 세계가 금지하고 있는 욕망의 세계를 맞닥뜨렸을 경우이다. 즉, 억압된 것들이 ‘환상’의 형태로 돌아온 셈이다.

한편, 김령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채생의 욕망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9) “어르신께서 한미한 소생을 누추히 보시지 않고 정중하게 대해주시니 동상東床에 오래 머물러 조그만 정의나마 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묘사가 눈앞에 있고 갈길이 머니 만약 일각이라도 지체하다가는 기일에 대어갈 수 없을 까 걱정입니다. 이제 고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이 여기서 몇 리나 되는가?”

“백여리 됩니다.”

“지친 걸음으로 터덜터덜 가노라면 착실히 사흘이 걸리겠지만 준마로 내달으면 반나절 노정에 불과하다네. 이틀 밤을 여기 유숙하여 나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주게.”

“가친의 훈계가 엄하십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미적거리고 있다가 뒤늦게 살진 말, 산뜻한 옷으로 보란 듯이 달려가면 일이 급방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어르신께서는 다시 생각해보옵소서.”

“내 벌써 깊이 요량해두었다네.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

채생은 내심 선뜻 떠나고 싶지 않다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대단히 다행스럽게 여겼다. 55)

20) 이튿날 아침 묘사를 지내고 귀로에 올랐다. 얼마 걸어나오지 않아서 어제의 수레와 말이 길가에 기다리고 있었다. 채생은 다시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나는 듯이 김령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길로 곧 귀가하려 하자 김령이 말렸다.

“춘부장은 자네가 걸어올 줄로만 생각하지, 타고 올 줄로는 생각지 못하시네. 백여 리 먼 길을 하루에 들어가면 곧 종적이 탄로나 달리 꾸며낼 말도 없을 것일세. 다시 더 하룻밤 묵어감만 못하네.”

채생 또한 신방에서 보낸 날들로 새로 맺은 정이 무르녹아 헤어짐에 당해서 눈물이 저절로 앞을 가렸다. 신부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물었다.

“가친의 가르침이 엄격하시어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갈대를 말씀드려야 한다오. 봄가을로 묘사철에 이번처럼 나를 대신 보내신다면 기회가 생기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해가 가고 세월이 흘러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니 임자는 혼자 사는 것이나 진배없구려.”

채생은 이 말과 함께 눈물을 쏟았다. 봉별난리라 할 것이었다.⁵⁶⁾

인용문 19), 20)에서 김령은 묘사를 하고 귀가를 해야 한다는 채생을 만류하며 하루 이틀 더 묵기를 권하고 있다. 김령의 만류에 채생은 “가친의 훈계가 엄격”한데다 머뭇거리면 “들통”이 날 것이라 말한다. 가친의 훈계가 엄격하지 않으면, 들통나지 않으면 김령의 집에 더 머물고 싶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령이 거기에 대해 다 계산이 서 있다고 안심시키자 채생은 “내심 떠나고 싶지 않다” 이 말을 듣고 “다행스럽게” 여긴다.

20)에서 채생은 신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눈물을 흘린다. 신부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친의 가르침이 엄격해서”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갈대를 말씀드려야 한다고 대답한다. 역시 가친의 가르침이 엄격하지 않다면 매일같이 만나고 싶다는 얘기이다. 이처럼 채생의 욕망은 김령의

55) “大爺不鄙寒蹤，恩摯鄭重，非不欲久叨甥館，用表微虔，而但墓祭在即，前途脩遠，若一刻延拖，則無以及期。敢此告別，仰乞心諒。”主人曰：“先龕距此幾里？”曰：“百里有羨。”主人曰：“若問關困步，則可費三日，若一馳駿鬣，則不過半日之程。願姑留兩日，無孤此望。”生曰：“春庭訓戒甚嚴，余若淹滯于此，未乃乘肥衣輕，揚揚馳驟，則易致事覺。願大爺三思。”主人曰：“吾壽之已熟矣。可有妥帖，慎勿深慮。”生實不忍捨，及聆斯言也，自以為行。

56) 翌朝行祭而復路。未到數十武，車馬已候路傍。生改穿錦衣，馳回金家。因欲還家。金曰：“貴爺料君有步而不能料君有騎。百里長程，一日而還，則漏罅已出，補綴不得。莫若更過信宿而歸觀。”生又穩度香閣，新情款洽。如期而別，涕泗被面。娘子進問後會。生曰：“親教嚴重，遊必有方。倘春秋墓祭，更使余替行，則謹當一倣今日之規。不爾，經歲經年，娘子便是一般寡也。”言與淚并，鳳別鸞離。

세계를 향해 있다. 어마어마한 부와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세계가 바로 채생이 원하는 세계다. 그것은 아버지의 세계에 없는 것들이다. 이 점에서 김령은 채생에게 금지되었던 ‘욕망’의 결계를 풀어준 존재나 다름없다. 김령은 채생에게 제 2의 이상적 아버지이다. 가난하고 무능한데다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는 채노인과 부유하고 유능한데다 모든 걸 충족시켜주는 김령. 폭력적인 아버지와 닮아있는 아버지. 채생의 마음은 후자 쪽에 가 있다.

서사에서 채생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부시가 든 작은 주머니(火鐵小囊)’다.⁵⁷⁾ 그것은 아버지 세계에서 채생에게겐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채생은 신부와 헤어지던 날 ‘비단주머니’를 베주머니 속에 감추어서 집에 돌아오게 된다. 집에서 떠날 때 채생의 품에는 아무런 것이 없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금지된 욕망’을 몰래 품고 오게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가르침(이념)을 따르지만 속내에는 그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을 욕망하고 있는 몰락 양반의 이중성은 아들 대에 있어서도 여전하다. 앞서 채노인의 이중성이 ‘술’로 폭로가 되고 있다면, 아들의 이중성은 ‘비단주머니’로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채노인이 ‘변덕’을 부리는 것은 채생이 ‘망설’이고 있는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다만 집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양상이 다를 뿐이다.

여기서 김령이 채생의 모든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가부장 지위에 올라서게 도와주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령을 만남으로써 채생은 가부장의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넘겨받게 되고, 김령 딸을 첩으로 맞아들이며, 김령이 제공하는 물질 자본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오로지 공부에 힘써서” 과거 급제 하여 종국에는 기로사에 들어가는 영예까지 얻는다. 채생의 욕망이 기적처럼 완성되는 결말이다. 채생은 역관의 세계와 아버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며 시종일관 어리숙한 태도로 망설이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다가 욕망의 해결을 역관에게 모두 떠맡겨 버리곤 황홀경의 세계를 독차지한다. 채노인과 채생, 둘 다 대놓고 내색하진 않으나 누구보다 물질/육체적 세계를 지향하면서 똑같이 중인층에게 의존적이다.

텍스트에서 서술자는 채생의 성격을 규정할 때, “愚駭”, “心癡”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채생을 향해 조롱이나 비판적 시선이 채노인 경우처럼 강하게

57) 이승은(같은 논문, 132면)은 이것이 결코 숨길 수 없는 욕망의 상징임을 언급하였다.

느껴지지 않으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술자가 중인 역관에게 기우는 편향적 시선과 차이가 있다. 채생을 ‘어리석은 자’로 일관되게 바라보면서, 서술자는 그가 현실에 대한 아무런 자각도, 주체성도 없이 망설이면서 ‘욕망’만을 품고 있는 자임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폭력적 권위 앞에 억눌려서 살아왔던 채생에게도 물질적/육체적 욕망이 존재한다. 아버지의 세계에 반하는 그 은밀한 욕망은 역관 김령의 부와 아름다운 김령의 딸을 바라보는 황홀한 시선과 망설임의 태도, 시종 부끄러워하는 감정에서 감지되며 ‘비단 주머니 안의 부시와 부시돌, 바둑돌 무늬의 은화’로 압축적으로 상징된다. 하지만 자기 욕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채생은 구원자, 제 2의 이상적 아버지, 욕망의 환상적 해결자인 김령을 통해 욕망의 문제를 의존적으로 해결한다. 한편, 변덕스런 채노인과 망설이는 채생은 똑같이 ‘물질/육체적’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거울의 양면과 같다. 한 쪽은 욕망을 내색하지 못하고, 한 쪽은 욕망 앞에서 머뭇거린다. 한 쪽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한 쪽은 ‘아버지의 억압’ 때문이다. ‘이중적’이며 ‘폭압적’인 가부장인 채노인이 서술자의 시선에서 풍자되고 있는 것처럼 ‘이중적’이며 ‘의존적’이고 ‘어리석은’자인 채생 역시 풍자된다. 이 점에서 채생의 서사는 어리석은 자의 꿈과 황재를 그린 아이러니한 풍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런 미덕도 없는 인물이 명예와 부와 아름다운 여인을 독차지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하고 우스꽝스럽기 때문이다.

IV. 여인들의 욕망의 흔적: 인정투쟁과 怒

이 장에서는 채생 본처, 김령 딸, 채생 모친의 욕망의 흔적을 고찰한다. 변덕스런 아버지와 어리석은 아들로 구성된 몰락 양반 집안의 기적같은 행운은 역관 김령의 과부 딸 시집보내기 대작전 속에서 가능해진다. 만약 김령에게 과부 딸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채생의 행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령의 딸은 “남의 폐백을 받고 미처 혼례도 치르기 전에”⁵⁸⁾ 남편이

58) “...受人儷皮, 未趨喬禮, 而夫婿遽夭...”

죽어서 과부가 된 16세의 불운한 여인이었다. 이는 ‘혼인약정서와 혼인 선물을 신부집에 전달하면 결혼에 의한 인족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죽은 약혼자를 위해 3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당시의 법규 제정, ‘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신부는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관습⁵⁹⁾에 희생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김령이 “예법에 지키는 바가 있고 이목에 구애가 되어 시집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한 것이 어언 3년”⁶⁰⁾ 이라고 말했으니 김령 딸이 채생을 만난 것은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3년상을 다 치르고 난 직후라 할 수 있다. “간밤에 문득 애처로이 흐느끼는데 소리소리 한을 머금었고 마디마디 간장을 에는 듯한”⁶¹⁾ 딸의 울음 소리는 아버지인 김령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팠다. 이것이 김령이 길가는 아무 남자나 납치해서 재취로 만들어주는 일을 도모한 이유가 된다. 여기에는 내 딸의 현재적 행복을 고심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담겨있지만, 내 딸의 행복은 그저 남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물이해적 시각이 배어있기도 하다. 게다가 김령 딸은 채생의 환상적인 시각에서 욕망의 대상으로 어렵풋하게 비춰질 뿐이다.

그러나 채생 딸의 욕망이 텍스트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김령 딸과 헤어질 때, 채생은 부싯돌 비단주머니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망설인다. 이에 김령 딸은 “이 주머니를 큰 주머니 속에 숨겨두면 누가 알겠어요? 입고 오신 옷가지를 그대로 입고 이것만 가지시는 것쯤 별일이 없겠지요.”⁶²⁾ 라고 말한다. 채생이 욕망을 숨겨서 집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존재가 바로 김령 딸인 것이다. 그녀는 왜 굳이 김령에게 비단 주머니를 숨겨서라도 가져가게 했을까? 우선 김령 딸 입장에서 ‘비단주머니’는 자신과 함께 했던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사랑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비단주머니’는 채생의 비밀스런 내적 욕망의 은밀한 상징 가치자 ‘그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녀는 채생이 욕망하는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채생에게 ‘욕망을 숨겨서 들어가게 할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언젠가 드러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 욕구가 숨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일 년에 한두 번 운 좋게 성묘하러 올 때만 비밀스레 만나

59)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5, 350~352면.

60) “...而禮守有防, 瞻聆有碍, 未便他適, 奄至三稔...”

61) “...女忽於前宵, 悲號哀鳴, 聲聲吞恨, 寸寸斷腸...”

62) “此囊, 蘊晦大囊之中, 人難測見. 換着舊衣, 獨携此物, 有甚違戾.”

는 관계가 아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들켰으면 하는 욕망, 채생의 집안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김령 딸의 욕망이 ‘비단 주머니’에 담겨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령 딸에게 ‘비단 주머니’는 바로 인정 투쟁의 도구가 된 것이고, 김령 딸은 자신의 인정 투쟁에 채생의 욕망을 거꾸로 이용한 것이 된다.

김령 딸은 이후 김령이 마련해준 부유함을 기반으로 채생 집안에서 제법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 같다. 채생이 모친에게 이사를 권유할 당시 모친이 “김씨댁에서 무어라고 말이 없겠느냐”며 우려를 표하자 채생은 “이는 모두 김령과 소실의 뜻입니다. 저는 말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답한다. 김령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소실’의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김령 딸은 이제 집안의 대소사에 관여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하였음이 적시된다. 조선 시대 적처 이외에 여성은 부계 출계 집단에서 별로 중요한 의미도 없었고, 사회적 권위도 없었으며, 가족 집단에 갖는 구속력은 불안정하였음⁶³⁾을 상기해볼 때, 김령 딸의 인정 욕망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단주머니의 존재, 즉 암시된 김령 딸의 존재를 가장 먼저 감지한 본처의 상황은 첩의 상황과 180도로 뒤바뀐다.

21) 아내가 새벽에 먼저 일어났다. 혼자 생각하기를, 남편과 평소에 금실이 좋아 애정이 두터웠는데 선산을 다녀온 이후로 갑자기 이처럼 냉담해지다니, 필시 정을 두고 헤어진 사람이 있기에 자신에 대한 정이 멀어진게 아닌가 싶었다. 채생의 기색과 의복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별로 달라진 점은 눈에 띄지 않았다.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는 주머니에 눈이 가서 보니, 전에는 언제나 빈 껌떼기였는데 오늘은 무엇이 불룩하지 않은가. 의심의 구름이 점점 자욱해졌다. 이에 주머니 속을 뒤져보니 조그만 비단 주머니가 속에서 나오고 그 안에 부시와 부싯돌에, 바둑알 모양의 은화가 들어있었다. 아내는 잔뜩 부어가지고 그것들을 책상에다 벌여놓고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만을 기다렸다.⁶⁴⁾

63) 마르티나 도이힐러, 같은 책, 368면.

64) 妻黎明先起，自想道尊章平日琴瑟甚調，情眷桓篤，忽自楸鴛後，一此冷落，必有留情別人，問我舊好也。因歷看生之容色彩，無所顯露。因偶見生之所佩布囊，昔曾空空，今忽盈盈，疑雲漸遮。乃偷驗裡面，則果有一箇小錦囊，中實火金火石，兼有棋子樣銀貨。妻大怒，列置床上，要待生之睡覺自覈。

인용문 21)에서 본부인은 채생의 마음이 변했음을 눈치채고 그것이 다른 여자와의 정분 때문이려니 의심한다. 그녀는 채생 주변을 샅샅이 훑다가 결국 문제의 증거물(비단주머니)을 발견하곤 보란 듯이 책상 위에 나열해놓는 조치를 취한다. 그리곤 남편이 잠에서 깨어 그것을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기(自赧)’만을 기다린다. 본처의 이러한 행동은 ‘七出’의 하나인 ‘질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편을 질책할 수 있는 나름의 현실적인 대응 방식이다.

오늘날의 시선에서 채생이 ‘자난(自赧)’하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은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한 자기 반성의 소극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이는 남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남편이 처벌받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린 것일 수 있다. 앞서 살폈듯 채생은 자주 ‘난(赧)’하는 인물이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긋나는 욕구 대상에 시선이 닿을 때마다 그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한다. 그러한 순간은 채생이 살면서 가장 괴로워하는 심리적 고통의 시간, 자기 처벌의 시간이 될 것임을 본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즉, 아내는 부부의 방에 곧이어 들어닥칠 채노인이 ‘비단주머니’를 발견하기를 기다린 것이다.

채노인은 “신부를 맞아온 다음에는 동침하는 일까지도 날짜를 정해서 시켰으며”, 부싯돌 주머니를 들킨 문제의 그 날 밤도 “부친으로부터 내실에 들어가 자라는 엄명”을 내려 부부간의 사적인 친밀함까지 조정했다. 늦잠을 자는 채생을 깨우지 않고 내버려둔 채 책상 앞에 비단 주머니를 벌여 놓았다는 것은 곧 이를 발견할 채노인이 어떻게 나올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본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의 외도에 가장 강력한 응징을 가할 수 있는 존재는 채노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아내는 채생에 대해 매우 영리하고 효과적인 복수를 행한 셈이다.

“부아가 났고(大怒)” 남편이 “스스로 부끄럽기를 바랬다”는 기술에서 유교적 덕목에 충실한 순종적 여성을 발견할 수 없다. 남성 스스로가 죄책감이나 수치감을 느끼기를 바라고 아울러 집안 최고의 어른에게 외도의 사실이 폭로되기를 기다리는 대응방식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여인의 욕망과 생생한 감정의 흔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이후 김령 딸이 시집을 오면서 본처는 어느새 소리 소문없이

실종되어 버린다. “정실부인”의 자격으로 예로써 만났다는 말만 간단히 기술될 뿐이다. 이 점에 관해 『이조한문단편집』 작품 해설에서 지적인 뒤 채생의 부친이 새집으로 옮길 적에 정실 부인도 함께 갔을 것 같다는 추정 정도로 그쳤다.⁶⁵⁾ 그러나 여기에는 부유한 첩의 상승된 위상의 흔적과 함께 가난한 양반 가문 출신의 본처가 자리매김할 수 없는 역전된 현실, 조선 초기부터 이어온 처첩제도의 불평등한 관계가 경제적인 문제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채생 모친은 채생의 아내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만은 않는다. 그것은 그녀가 명실상부 집안 내에서 남편 다음의 서열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는 비록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열등하게 여겨졌지만,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남편과 더불어 자식 세대로부터 존경과 복종의 표시인 효를 얻는 권리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⁶⁶⁾ 재밌는 것은 모친이 가정 내 권력자인 채노인의 뜻보다 김령 집안의 뜻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22) 채생이 모친께 아뢰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노년에 이르셨습니다만, 소자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학업도 부족하여 과거 급제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 가닥 효도할 도리는 오직 새집으로 옮겨 안온히 부귀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 소망을 들어주옵소서.”

“내가 만약 새집에 가 있으면 김씨택에서 무어라고 말이 없겠느냐?”

“이는 모두 김령과 소실의 뜻입니다. 저는 말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채생의 모친은 그 말에 따르면 그 말에 따른 의향이 있어서 채노인에게 말을 꺼냈다.

“당신이 심기가 쇠약해져서 엉뚱한 말을 하는구려.”

모친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온 이후로 검수도산에 단 하루도 마음이 편치 못하였소. 이제 다행히 의식의 방도를 얻어 편안히 마음 놓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게 다 둘째 며느리 은덕이 아니예요? 이제 또 효성으로 우리를 모셔다가 여생을 편히 지내게 하려는데 무슨 손상되는 일이 있다고 따르지 않겠어요?”

65)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2, 창비, 2018, 34면.

66) 마르티나 도이힐러, 같은 책, 362면.

“당신 혼자 가구려! 나는 이 집을 지키고 살겠소!”
마침내 모친만 낱을 받아서 새집으로 들어갔다. 67)

부모를 새집으로 모시고 싶다는 채생의 말에 모친은 “김씨댁에서 무어라고 말이 없겠냐”며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감정을 내비친다. 채생은 이 모든 게 “김령과 소실의 뜻”이라고 말하자 모친은 그제야 이사 가고 싶은 의지를 내보인다. 시어머니가 아들 첩의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막상 채노인이 함께 가리를 거부하자 모친은 “노(怒)”한다. 모친은 무능한 남편과 살면서 고생스러웠던 과거를 상기시키며 이제 편안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 그 기회를 둘째 며느리가 만들어주었고, 그 애들이 효도 하고 싶다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따르지 않겠냐고 화를 낸다. 능력도 없으면서 죽도록 처자식을 고생시키며 체면만 차리고 싶어하는 채노인에게 분통 터져 한 뒤, 기어이 혼자서라도 새 집에 들어간다. 이 모습에서 실추된 채노인의 권위는 물론이요, 삼종지도의 덕목이나 가족 관계의 전통적 위계를 건어차고 체면을 차리다 내실 없는 삶을 살기보다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싶은 현실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한 여성의 리얼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처럼 서사에 숨어있는 여인들의 욕망의 흔적은 당시 가족 관계의 전통적 위계가 뒤집어지고 있는 세대와 사회가 기대하는 시선에서 탈출하기 시작한 상이한 위치의 여성들의 다양한 욕망을 보여주며 몰락 양반 계층을 풍자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V. 맺음말

본고는 2장에서 채노인의 풍자적 성격에 대해, 3장에서 채생의 심리적

67) 生告其母曰：“阿父阿母，平生吃苦，俱迫桑榆，而米息年淺學蔑，難期奉檄，顧今一分志養之道，只在移處新舍，穩享富貴。願得採納。”母曰：“我若移居，則金家當謂我何？”生曰：“此金令及側室之意，而我不過傳命之郵耳。”母頗有肯意，備告于蔡老。蔡老曰：“卿卿志氣衰邁，至有贅說。”其妻怒曰：“我自從尊章，劔水刀山，未嘗一日釋慮。今幸得衣食之天，安居肆志，次婦之恩，固大矣。今又虔誠邀我，以養餘年，有何虧傷，而不為勉從也？”蔡老曰：“卿卿自去！我則當守窮廬！”蔡老曰：“卿卿自去！我則當守窮廬！”其母乃卜日搬撤。

국면에 대해, 4장에서 여인들의 욕망의 흔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제까지 논의하였던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첫째, 채노인의 풍자적 성격은 물질/육체적 욕망과 사회적 체면(이념) 사이에서 왔다 갔다하는 ‘변덕’과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방어 심리로 나타나는 ‘기억상실’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 몰락 양반 계층의 이중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희극적인 인물 창조 방식으로 생각된다.

둘째, 채생이 김령 및 그의 딸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욕망 성취 과정에는 환상성이 가미되어 있다. 납치되는 과정과 김령과의 만남, 으리으리한 김령 집의 묘사, 김령의 딸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장면에서 보이는 채생의 황홀한 시선과 망설이는 태도의 심리적 국면의 면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심리적 국면은 ‘赧’이라는 감정으로도 표현된다. 이러한 점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가르침(이념의 세계)을 준수하지만, 속으로는 그 가르침에 위배되는 욕망을 품고 있는 채생의 이중적인 면모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한편, 채생 욕망의 환상적 성취는 부자간의 갈등이 표층 아래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텍스트는 폭력적이며 무능한 가부장(채노인)의 억압과 경직된 이념에 반해, 지독히도 가난한 현실과 이념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아들의 내적 진실-배 속에 감추어진 부식될 비단 주머니를 꿈꾸었던 비밀스런 내적 욕망-을 일순간 엿보게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욕망의 지향이 결국은 그 자신의 자각이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욕망의 실현이 철저히 중인 역관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사는 이중적이고 의존적이며 어리석은 자의 과대망상적인 꿈과 기적 같은 황재를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각지대에 놓인 여인들의 욕망의 흔적들에는 변화해가는 세대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나름의 대응방식들이 엿보인다. ‘인정 투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고자 하는 첩, 부부간의 신의를 배신한 남편에 대한 ‘칠출’의 땅에 걸려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복수를 시도하는 본처, 삼중지도를 걷어차고 현실적인 생존의 길을 선택하는 모친의 모습에서 전통적인 위계 관계나 사회가 기대하는 시선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여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상을 생동감있게 보여주며 몰락 양반 계층 풍자에 일조하고 있다.

살핀 바와 같이, 『채생기우』는 채노인의 핵심적 성격과 채생의 ‘환상’적인 심리의 국면을 통해 몰락양반 계층의 이중성과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풍자해낸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이념이나 위계 관계에서 탈출하고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욕망 실현은 채생의 어리석음과 신의 없음, 채노인의 무능력과 결부되어 이루어지는 바, 몰락 양반 부자의 풍자에 일조하고 시대의 변화를 생동감있게 반영하는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

본고는 텍스트의 ‘풍자성’을 고찰함에 있어 여타의 몰락 양반 서사나 『기리총화』와의 관련 하에서 비교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자료

-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2, 창비, 2018.
_____, 『이조한문단편집』 4, 창비, 2018.
(宋)李昉 외, 『태평광기』 3,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학고방, 2001.
_____, 『태평광기』 17,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학고방, 2004.
楊家駱 編, 『唐人傳奇小說集』, 世界書局, 1998.

2. 단행본

- 김현주, 『고전서사체 담화분석』, 보고서, 2007.
이석래, 『조선 후기 소설 연구-諷刺와 관련하여-』, 경인문화사, 1992.
장기근 편역, 『당대 전기소설의 여인상』, 명문당, 2004.
Arthur Pollard, 宋洛憲 譯, 『Satire』,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옮김,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5.
미야자마 히로시, 노영구 옮김,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 양반』, 강, 2006.
츠베탄 토도로프, 이기우 옮김, 『덧없는 행복 - 루소론 외』, 한국문화사, 1994.

3. 논문

- 강혜규, 「<채생기우(蔡生奇遇)>와 <장수과전(張守果傳)>의 비교-인물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5, 국문학회, 2022, 257~274면.
권혁화, 『결방연이팔낭자의 구조와 의미』, 경북대 석사논문, 1993.
김성룡,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5~30면.
박희병, 『『청구야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孫燦植, 『“漢文短篇”에 나타난 沒落 兩班의 刑象』, 『국어교육』 92, 한국어교육학회, 1996, 107~130면.
이도연, 『국문학 연구에 있어 희극성의 “개념”과 “범주” 설정을 위한 예비적 시론』, 『인문논총』 65,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2011, 449~472면.
_____, 『현대 풍자소설의 계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7(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71~291면.
이승은, 『『기리총화』소재 각화의 서사기법 다변화 양상과 의미』, 『고전과 해석』 22, 고전문학 한문학연구학회, 2017, 127~152면.

- 이신성, 『漢文短篇 <金令>의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3, 한국한문학회, 1978, 199~226면.
- 장영희, 『결방연이팔낭자(結芳緣二八娘子)의 대립구도와 그 의미』,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967~988면.
- 정술미, 『조선후기 걸귀담(乞鬼譚)의 양상과 『십가괴귀』(沈家怪鬼)의 창작적 면모』, 『한국고전연구』 60, 한국고전연구학회, 2023, 67~97면.
- 崔光皙, 『<結旁緣二八娘子>의 구조와 시대적 의미』, 『문화와 융합』 18,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97, 161~184면.

Chaesenggjuwo(蔡生奇遇) Consideration of Satire

- Focusing on Character Formation and Desire -

Ahn, Ji Min

This article takes as its subject of study the Yadamgye(野談系) short novel *Chaesenggjuwo*(蔡生奇遇). The purpose is to examine Old man Chae(蔡)'s Satirical character, his son's psychological phase of fantasy, and traces of women's desires.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reveal that the way of depicting characters and desires contributes to effectively taking on satire.

Previous studies have tended to look at the work mainly based on the confrontation between Old man Chae(蔡) and interpreter Kim Ryeong(金令). It seems that there was a strong intention to place the work in the coordinates toward modern realism novels by highlighting aspects that dynamically show social status trends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However, as that view has solidified to this day, it is thought that areas excluded from the work also clearly existed.

This paper focused on three aspects of the excluded areas.

First, contrary to the existing view that defined Old man Chae's character as 'serious' and 'stern', it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fallen noble class is effectively being satirized by acquiring a comical typicality that goes back and forth between desire and respect (ideology) around 'whims' and 'memory loss'.

Next, the description of the fantastic desire detected in the son Chae-saeng(蔡生)'s gaze, attitude, and emotions shows that this text is not only composed of the axis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old man Chae and interpreter Kim Ryeong, but also that there is another axis of generational conflict between father and son. This tells us that the text contains a fantastic narrative of the son's dual desire to fulfill his desire that goes against his father's teachings without seriously violating his father's world.

Next, we examine how the fantastic desire detected in the son Chae-saeng's gaze, attitude, and emotions reveals the duality of hesitation between his father's teachings

(ideology) and his desire.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son's narrative is being satirized by depicting the narrative of a foolish person's megalomaniac desire and windfall as the miraculous fulfillment of the desire is achieved solely by the interpreter.

Lastly, by analyzing the desires of old man Chah's wife, Chae-saeng's wife, and Kim Ryeong's daughter, we examine how each woman escapes from traditional hierarchical relationships and society's expected gaze.

In doing so, this article aims to reveal that the text satirizes the downtrodden yangban class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ile unleashing the various desires of the members of the Fallen Yangban family.

Keywords: *Chaesaeenggijudo*(蔡生奇遇), Satire, Fantasy, Desire, Trace

접수일자: 2023. 9. 30. 심사기간: 2023. 10. 1.~2022. 11. 10. 게재결정: 2023. 11. 10.
